

이슈 브리핑

● 친환경차 / 탄소중립

- (탄소배출) '22년 유럽 내연기관 승용차 탄소배출량, '11년과 유사한 수준
- (EV) 美 일부 주, 휘발유 소비량 상위 10% 운전자에 대한 전기차 전환 자원책 검토
- (탄소배출) 선박 탄소배출, 파나마·수에즈 운하 우회로 인해 급증

● 자율주행 / SW / 미래모빌리티

- (자율주행) Cruise, 사건 안전보고서와 연간 예산 10억 달러 삭감 발표
- (ADAS) Tesla, 오토파일럿 운전자 모니터링 리콜이 사용자 불만 야기
- (SW) Stellantis, 차량용 SW 개발을 위해 CloudMade의 AI 기술 인수

●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

- (Denso) 연료펌프 결함, 日 브랜드 차량 48만여 대 리콜
- (CATL-DiDi) 배터리 스와핑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 (Continental) 멕시코에 유압 호스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

친환경차 / 탄소중립

◆ (탄소배출) '22년 유럽 내연기관 승용차 탄소배출량, '11년과 유사한 수준

- ECA(유럽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유럽은 '22년 내연기관 승용차 분야에서 '11년과 유사한 탄소 배출량을 기록했는데 동기간 차량 중량과 엔진 출력이 10%-25% 증가한 점이 원인

* EU 주요 기구 중 하나로, EU와 산하 보조 기구에 대한 회계 감사를 담당

- ECA는 또한 공인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간의 갭을 지적했는데, EU 집행위가 '21년 신차의 실 데이터를 예비 분석한 결과 디젤과 휘발유의 경우 실제 배출량이 각각 18.1%와 23.7% 더 많았으며 PHEV는 갭이 250%*에 달함

* 관련하여 ECA는 실제로에서의 엔진 사용 빈도가 높았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유류비를 개인이 아닌 법인이 부담하기에 직원이 배터리를 충전하여 얻게될 이익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임

※ Euractiv('24.1.29) <https://www.euractiv.com/section/road-transport/news/most-cars-on-eu-roads-emit-same-carbon-levels-as-12-years-ago-report/>

◆ (EV) 美 일부 주, 휘발유 소비량 상위 10% 운전자에 대한 전기차 전환 자원책 검토

- 비영리단체 Coltura는 보고서를 통해 경량차(LDV) 기준 휘발유 소비량 미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Super User*'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

* 미국 내 총 휘발유 소비량의 35%를 차지하며 연간 평균 주행거리는 미국 평균(21,565km)의 3배 가량인 64,763km

- 메릴랜드 주는 Super User에게 전기차 추가 리베이트*를 제안하고 워싱턴 주도 관련 연구를 의뢰하는 등, 일부 주에서 Super User의 전기차 전환 촉진 방안 검토 중

* 신차 전기차 구매시 보상판매차량의 중고차 이력 보고서를 통해 연간 최소 3,028L의 연료 소비를 입증할 경우 [소유기간 내 평균 주행거리 x 연비(mpg)로 계산] \$5,000 추가 리베이트 제공(중고차 \$3,000)

※ KleanIndustries('24.1.17.) <https://kleanindustries.com/resources/market-analysis-research/are-you-a-super-driver-some-states-want-to-help-you-go-electric/>

◆ (탄소배출) 선박 탄소배출, 파나마·수에즈 운하 우회로 인해 급증

- 운송환경단체 T&E에 의하면 홍해 선박 피격 문제로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공으로 우회한 선박 1척의 탄소 배출량은 기존 대비 32.1% 증가하였는데, 현재 선박 95% 가량이 우회 중인 점을 고려하면 선박들의 일일 추가 배출량은 총 16.2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
- 한편 파나마 운하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화물 중량이 기존 대비 40%로 제한되며 운항 지연 등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전망으로 선박의 탄소 배출 저감이 상기 문제들로 인해 다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제기

※ Time('24.1.19.) <https://time.com/collection/time-co2-futures/6556409/panama-suez-canal-climate-impact/>

◆ (자율주행) Cruise, 사건 안전보고서와 연간 예산 10억 달러 삭감 발표

- Cruise는 '23.10.2 Cruise 로보택시가 다른 차에 치인 보행자를 6m 가량 끌고 간 사건의 안전보고서'에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고 있음을 밝힘('23.1.25)
- * 동사가 로펌 Quinn Emanuel에 의뢰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당국과 회의 전 Cruise 직원 100명 이상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동영상으로 설명하려 했으나 인터넷 문제로 재생하지 못하고 구두로 설명 하지 않음. Cruise는 로보택시가 1차 사고를 일으켰다는 언론 보도를 바로 잡으면서, 다른 차에 치인 보행자를 끌고갔다는 사실은 누락함
- 이후 모기업 GM은 Cruise의 연간 예산 약 10억 달러를 삭감했으며, 로보택시 운영 복귀 일정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힘('23.1.30)

※ Reuters('24.2.1.)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gms-cruise-faces-long-road-back-city-streets-wake-safety-review-2024-01-31/>

◆ (ADAS) Tesla, 오토파일럿 운전자 모니터링 리콜이 사용자 불안 야기

- '23.12월 Tesla는 운전자의 오토파일럿 오용 방지를 위해,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자동 조향 작동·해제 단순화, 눈에 띄는 경고 문구, 운전자 모니터링 강화, 경고 5회 무시할 경우 자동 조향 비활성화 등 리콜(무료 OTA 업데이트) 실시
- * 이와 같은 조치는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쉽게 오용할 수 있다는 연방안전조사 결론에 따른 것
- *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 전 최고 관리자 Steven Cliff는 오토파일럿이 일부 운전자에게 도로에서 눈을 떼도 괜찮다는 인상을 줬으며, Tesla가 운전자 관점에서 매우 편리하지만, 안전 관점에서 끔찍한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말함
- 최근 Wall Street Journal은 업데이트에 따른 과도한 경고*가 운전자 불편을 야기하며, 미국자동차안전규제기관에 최소 30건의 리콜 관련 불만 사항을 접수했다고 보도
- * Tesla 운전자는 사이드미러나 경고문구를 볼 때, 미래 선글라스 착용 시 경고음이 울린다고 말함. 일부는 도로를 주시하는 데도 허위 경고가 뜬다고 하며, 다른 운전자들은 경고 때문에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Wall Street Journal('24.1.23) https://www.wsj.com/business/autos/tesla-recall-fix-for-autopilot-initiates-divers-disappoints-safety-advocates-13a0b047?mod=autos_news&live_pos=1

◆ (SW) Stellantis, 차량용 SW 개발을 위해 CloudMade의 AI 기술 인수

- CloudMade의 AI 프레임워크*, 머신러닝 모델, 지적재산권, 특허 등을 인수하고, AI 부문 엔지니어 및 SW 개발자 44명이 Stellantis에 합류하여 STLA SmartCockpit 개발 지원 계획
- * 자동차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한 클라우드 및 SW 개발 키트
- STLA SmartCockpit*은 내비게이션, Alexa 기반 음성 지원, 인터넷 쇼핑 및 결제 서비스 등의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제공 예정
- * Stellantis와 Foxconn의 Digital Cockpit 및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을 위한 50:50 합작투자사 Mobile Drive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Amazon의 홈 모니터링, Alexa 등 차량용 서비스 제공

※ Automotive News('24.1.24) <https://www.autonews.com/automakers-suppliers/stellantis-buys-cloudmades-ai-tech-support-vehicle-software-development>

◆ (Denso) 연료펌프 결함, 日 브랜드 차량 48만여 대 리콜

- 일본 국토교통성은 Denso의 연료펌프 결함으로 인해 수지(Resin)가 축적되어 엔진 멈춤 및 하이브리드 모터 동력 상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24.1월 국내(日) 6개 완성차社* 차량 48만여 대 리콜
- * Subaru, Mazda, Suzuki, Mitsubishi, Honda, Yamaha에서 제조한 30종 이상의 자동차 및 일부 오토바이 모델이 해당
- ** Denso는 '20.3월~'23.12월 상기 언급한 완성차社와 협력하여 일본 내 380만 개의 연료펌프를 리콜했다고 밝힘
- Suzuki는 일본 외 지역에서도 1.8만 대 리콜 예정이며, Mazda, Suzuki, Mitsubishi, Honda, Yamaha는 다른 나라에서 리콜 계획 없음

※ Bloomberg('24.1.2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1-26/japan-recalls-481-824-vehicles-on-faulty-denso-fuel-pumps>

◆ (CATL-DiDi) 배터리 스와핑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 CATL은 중국 라이드헤일링 업체 DiDi와 중국 푸젠성 닝더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차량의 배터리 스와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 '22.1월 CATL의 전액 출자 자회사 CAES는 배터리 스와핑 솔루션 'EVOGO'를 출시하고 현재 샤먼, 푸저우, 구이양, 허페이 등에서 운영 중임
- ** 또한 CATL은 DiDi의 전기차 충전 업체 Orange Energy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23.12월 기준 Orange Energy는 중국 190개 이상 도시에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밝힘
- 공공 모빌리티는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갖고 에너지 충전 빈도가 높은 시장으로, 합작사는 ①대규모 스와핑 스테이션 신속 구축, ②스와핑 가능 차량 홍보, ③공공 에너지 충전 시장의 운영 효율성 개선 예정

※ CnEVPost('24.1.28.) <https://cnevpost.com/2024/01/28/catl-didi-form-battery-swap-jv/>

◆ (Continental) 멕시코에 유압 호스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

-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州 산업용 유압 호스* 생산공장 건설을 위해 9,000만 달러 투자 발표
- * 해당 분야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고, 농업, 광업, 건설, 제조, 에너지 등의 주요 산업에 공급할 예정
- ** 총 면적 85,000㎡ 이상이며, '24년 하반기 공장 건설을 시작해 '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함
- 새 공장은 태양광 패널, 공정수 재사용 기술, 스마트팩토리 툴, 고도 자동화 및 에너지 최적화 설비 등의 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향후 추가확장에 대비하고 있음

※ Continental('24.1.26.) <https://www.continental.com/en/press/press-releases/aguascalientes/>